세상에 전하며 불국정토 이룹시다

일심 믿어 견성 하세

(사)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我今設實語
汝等一心信
修習佛智慧
必得於見性

내가 지금 진실한 말을 하니
우리 무리들은 일심으로 믿어
부처님 지혜를 습득하게 되면
반드시 견성을 얻을 것이다.

자리이타 대서원 다시 세우세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전하셨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던 불자들에게 가르침이 전해지고 사성제와 연기법과 팔만 사천의 법문이 소통되었습니다.
여러분! 계묘년 초파일을 맞아 부처님 진리 말씀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통시키는 자랑스러운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아 불성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 수행하며 부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동체 대비 서원을 세워 자타를 구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청정, 부처 자리 오르자

세계불교 육조조계종
종정 동봉 스님



인간은 삶의 의미를 끝없는 욕망과 물질의 충족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나의 소관이고, 세상이 혼탁한 것도 내 책임입니다. 일부러 복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태여 화근을 짓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두우면 중생으로 남고, 마음이 청정하고 진솔하면 부처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각자 자세를 낮추어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되는 정진을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정림 스님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로 이웃과 내가 하나임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돕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가르침인 자비의 원리이며 최고의 덕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에 감복하여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은 짧았지만 깨달음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해집니다.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한 그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자비심을 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부처 됩시다.

평화공존 세계 나가자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분단의 역사 70년이 자리하고 있는 이 나라에 아직도 남과 북의 극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고, 평화공존은 멀기만 합니다. 사회 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 나라로 눈을 돌리면 전쟁과 테러, 종교분쟁, 인종차별, 지진 등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탐욕과 증오,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더불어 가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불법 귀의하면 날마다 좋은 날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은 무량겁의 공덕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해탈의 기쁨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팔만 사천의 청정한 길을 펼쳐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일체중생이 지혜로 태어나고 자비로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부처님은 45년간 맨발의 전법을 통해 지난(至難)한 고해(苦海) 속에서 보리(菩提)의 길이 있고, 억겁 윤회의 고통에서 열반의 실상(實相)으로 들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마다 귀를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요, 하나하나 실천하면 곳곳이 대자대비의 화엄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분별심 버리고 이타수행 나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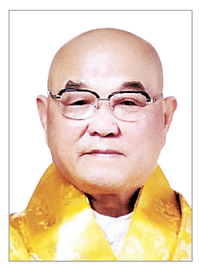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스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지 2567 성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세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통이 다 하면 즐거움과 행복이 오듯, 우리는 더욱 대동 단합하여 용서와 화합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심으로 돌아가서, 진제(眞諦), 속제(俗諦)를 따로 분별함이 곧 번뇌 망상심이니 심신이 둘이 아닙니다. 세속과 승가가 곧 마음 안에 있고 수행에 있다함이니 우리 모두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인류를 위해 발심 수행합시다.

적멸의 즐거움에 이르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혜륜 법진 스님



歸依佛 兩足尊
歸依法 離欲尊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승 〈대반 열반경〉 사구게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제행은 항상함이 없으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생함과 멸함이 멸하여야 적멸의 즐거움에 이르나니.

억압받는 이웃 돌아보세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등불을 켜서 항상심을 가지고 수행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보이는 현상계 물질계 집착하고 욕망을 키워 만족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통 아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의 삼세인과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새겨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무명에서 벗어납시다.

깨달음은 공경으로 회향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우리 불자들은 초파일이면 항상 등을 밝힙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상징인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깨달음은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 회향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처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정진해 나갑시다.

하심의 도리를 행합시다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생명이 움트는 봄날에 꽃비 흩날리며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헛된 말에 귀를 열어 현혹되지 말고 하심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무명이라는 어둡고 어두운 곳을 밝게 밝혀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남과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여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말로만 하는 화합과 상생으로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하심의 도리를 행하는 참 불자가 됩시다.

복전작복 합시다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나무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잘살기를 희망합니다, 콧구멍 없는 하늘소가 울부짖는 이치와 같습니다. 공부도 문복이 있어야 하고 벼슬도 관복이 있어야 하고 재물도 재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무식도 면하고, 벼슬도 얻고 재물도 얻는 것입니다. 전생복이 없으면 제아무리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부자는 잔꾀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귀를 지혜로 구한다면, 성인은 소녀 시절 큰 벼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뜻 모르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만 고달프게 하는구나.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방 장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053)980-7900 / 팩스 053)985-4405

